

#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독립·호국·민주가 어우러지는 균형과 포용의 보훈”



**Q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로 진입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여건에 맞춰 보훈의 핵심인 '독립·호국·민주가 어우러지는 균형과 포용의

보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고령과 만성질환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도 90%까지 상향했습니다. 또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사제도'를 신설,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성독립운동가 포상 확대, 참전유공자 발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등도 성과입니다.

**Q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보훈 분야 중 독립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요?**  
지난 2017년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발굴 의지를 밝혔습니다. 8월 광복절에는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훈처는 국가 증명책임을 강화하고 여성 독립운동가를 집중 발굴, 포상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발굴·확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독립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 인원은 2017년 269명, 2018년 355명, 올해 64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성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한 포상기준



을 만들어 전체 여성 포상자 472명 중 38%에 달하는 177명을 현 정부 들어 포상했습니다.

**Q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진행 상황과 계획은?**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과 나누기 위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25 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 민주유공자 등 14만여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렸고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월남 참전유공자 등 타 보훈대상자까지 명패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Q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확충계획은?**

국가유공자 안장 시설은 포화상태로 안장대상자는 41만명(80세 이상 11만명), 안장여력은 6만기에 불과합니다. 보훈처는 서울과 대전현충원을 확충하고, 국립연천현충원과 제주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해 2025



1 이병구 차장이 6·25전쟁 69주년 한강방어선 전주시 견기대회에 참가한 국가유공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 이 차장이 추석을 맞아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3 이 차장이 제2연평해전 유족인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득호씨(왼쪽)씨를 위문하고 있다.



년까지 현충원 13만기, 호국원 6만기 등 20만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품격있는 안장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분들의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국내외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명예선양, 참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

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Q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처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국민통합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보훈 정책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준과 제도 변경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①